

반려동물의 수호천사 '수의사'

올리브동물병원 수의사 박정윤

대한민국 반려동물 사육가구의 비율은 21.8%. 반려동물 사육 인구는 약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2015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이는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은 반려동물을 기른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농협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 관련 시장의 규모는 2012년 약 9000억원에 불과했지만 2015년에는 1조 8000억 원 정도로 2배 가량 성장했습니다. 2020년에는 약 5조 8000억 원으로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규모지요.

많은 사람들에게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용 동물이 아닌, 하나의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만약 내 가족과 같은 반려동물이 아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의사를 찾아가야 하지요.

아픈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 수의사는 말을 못하는 동물을 어떻게 진료할까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선 어떤 역량을 길러야 할까요?

▼ 수의사가 하는 일은?

동물의 건강을 관리하고 병을 치료하는 역할!

수의사란?

동물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 아픈 동물을 진료·치료하는 사람

수의사는 동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아픈 동물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달리 동물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아픈지, 증상은 어떠한지 말을 할 수 없지요. 따라서 동물의 모습을 관찰하고 보호자의 이야기를 세세하게 들으며 진찰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증상을 파악한 뒤 필요한 검사를 진행해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적절한 치료법을 찾아 치료를 진행합니다.

▼ 수의사에게 필요한 자질은? 동물만 좋아하면 될까?

NO! 생명을 책임진다는 사명감과 공감능력·의사소통능력도 갖춰야!

단순히 동물을 좋아하는 것을 넘어 동물의 생명을 책임지는 일

▶ 동물을 돌봐야 한다는 사명감 갖춰야!

반려동물의 보호자를 대해야 하는 직업

▶ 공감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은 필수!

수의사가 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동물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동물을 귀여워하는 것을

넘어 한 생명을 돌보아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지요. 동물병원에는 우리가 평소 귀여워하던 예쁜 동물만 오지 않습니다. 지저분하고 아픈 동물들도 오는 곳이 바로 동물병원입니다. 수의사는 병원을 찾아오는 모든 동물들에게 책임감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존재에 대한 폭 넓은 이해심을 갖춰야 하지요.

이러한 이해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직접 반려동물을 길러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병이 든 동물을 돌보는 과정에서 동물을 평생 책임지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나아가 향후 수의사로서 다른 반려동물 보호자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자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과 공감능력은 수의사가 갖춰야 할 매우 중요한 자질 중 하나입니다. 보호자의 애타는 마음을 달래주고, 보호자가 치료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것도 수의사의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이지요.

▼ 수의사가 되려면?

수의학 전공 후 수의사 면허 취득해야!

대학에서 수의학 전공 → 국가시험에 합격해 수의사 면허 취득

수의사가 되기 위해선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먼저,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해 수의사로서 일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그 후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수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해 수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수의사로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의사는 동물병원에서만 일할까요? 아닙니다. 동물병원을 포함한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돼지·소와 같은 산업동물을 진찰하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메르스처럼 사람과 동물이 공통으로 감염되는 병을 연구하는 제약회사에서 활동하는 수의사나 화장품 회사 소속 수의사도 있습니다. △가축위생 △방역 △검역소 △목장 △유업회사 △사료회사 △약품회사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수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수의사, 이것만은 꼭 알고 하라!

동물들의 죽음까지 지켜볼 수 있는 자세!

“수의사는 예쁘게 앓아 진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동물들의 죽음까지 마주하는 일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아픈 동물을 치료해야 하므로 동물을 사랑해야만 할 수 있는 직업이지요.”(박정윤 수의사)

반려동물이 가족인 시대, 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반려동물의 수호천사 '수의사'. 동물에 대한 애정을 갖고, 동물의 건강을 치료해주고 싶은 학생이라면 수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을 길러 수의사의 꿈을 키워나가길 바랍니다.